

통일플러스

통일 스토리

남북공감

민주평통 365

즐거운 통일

심포, 느낌표



통일 돋보기
남북한의 수교국과
제약공간 현황

통일을 여는 사람들
스포츠를 통해 남북한 통일에
힘 보태주세요

통일 Talk
우리 학생들은 현장체험형
통일교육을 원해요!

포커스

10·16 한미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다.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더보기](#)



행복한 동행
탈북민 가족 연경이
한국말 배워 중학교 갔어요!



골든벨, 빛 이야기
통일골든벨, 퀴즈왕대회로
학생들이 달려갔어요!



Today 남북
속함을 횡단하는
북한의 겨울나기



최용우를 남한 격용기
좀 더 빨리 한국에 올 걸
후회했어요



평화통일 청년 한마당
"청년이 공감하고 꿈꾸는
가까운 통일이야기"



NUAC News
중국지역회의,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영원 임정 대령정 안주



느낌 있는 여행
갈대밭 한가운데서
마음이 길을 알아, 순천



통일 짝꿍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나라,
통일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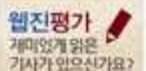
통일 레시피
천식 기침에 좋은
평안도 덕덕볶음



이벤트 당선작
보름달에게 통일소원 말해봐
당선작



이벤트
통일 동물을 밝혀라 이벤트





10 · 16 한미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김 상 기(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안은 북핵 문제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 둘째, 양 정상은 비핵화 목표 성취를 위해, 제재를 통한 압박과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셋째,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입증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양국 정상은 확인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성과는 북핵 문제를 사실상의 단일 의제로 채택한 공동성명 발표 자체에 있으며, 특히 미국이 최고의 시급성과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데 합의한 점이 중요하다.

... 중략...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 표명은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성과는 북핵 문제를 사실상의 단일 의제로 채택한 공동성명 발표 자체에 있으며, 특히 미국이 최고의 시급성과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데 합의한 점이 중요하다. 지난 수년 간 북핵 문제는 미국 대외정책의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나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 간 대화는 3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며, 북핵 불인정을 위한 한·중·일과의 공조 및 경제

제재를 제외하고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적 인내의 이름으로 대화 부재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키워왔다. 북핵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공동성명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 표명은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숙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성명에서 제시된 북핵 대응책의 내용에서 과거와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제재와 더불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접근 방식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정책이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를 강조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전과 차별화되고 실효성을 가질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타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의 도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개입 등의 문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0월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 첫째,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대미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강화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향후 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대미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성명의 한계는 북핵 문제 국면 전환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재와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에 유발될 수 있는 파괴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다른 대안은 미국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치 대신에 비핵화 원칙 표명을 조건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당사자는 미국이다.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한 틀이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미 관계가 쥐고 있다. 북한이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태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유연한 접근과 북미 관계 개선 추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의 예로 2012년의 2-29 합의로의 복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 동결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강화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경제 대신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표현을 사용하고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류원산 상무위원을 파견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한데 대한 북한의 화답이라 볼 수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생존전략으로써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중 관계 양상과 북한의 움직임은 중국이 다양한 전략 구사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한중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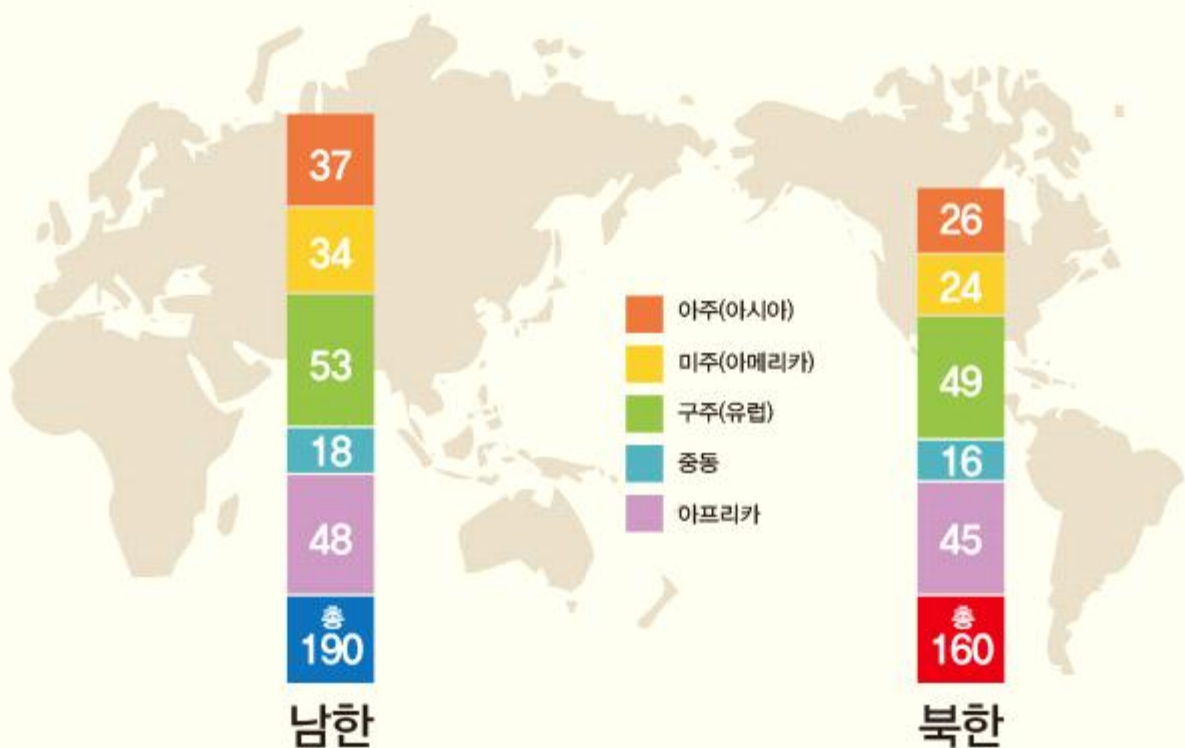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조정자 또는 주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이기도한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역에 안보-경제 이익이 걸쳐있는 미국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는 더욱 커질 것이며, 중국은 물론 타 주변국 들 또한 방관자로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8-25 합의 이후 남북 관계의 전개상황은 긍정적이다. 이산가족상봉과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가 잇따라 진행되고, 종교 및 학계 차원의 민간교류의 장도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향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회원국 중 188개국, 그리고 유엔 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 수교했으며, 북한은 160개 나라와 수교 중입니다. 재외공관의 숫자는 외교 관계, 국가경제력, 교역규모, 교민현황 등 국가의 경제력 및 외교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수교국 190개국 중 60%정도의 국가(114개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47개의 상주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수교현황



자료 : 외교부(재외공관 보고자료), 2014년 12월 말 기준

* 미수교국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유엔비회원국)

* 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비슷한 수준의 수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음.
미주·아주 지역은 우리나라 단독 수교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



남북한 재외공관 분포현황



자료 : 외교부(재외공관 보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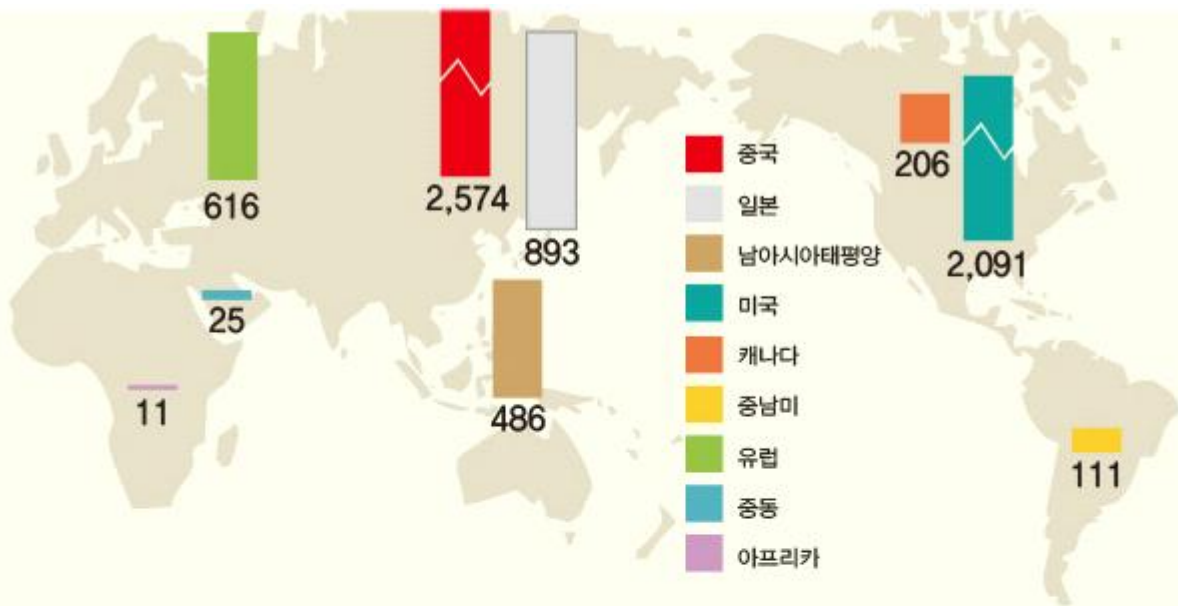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수교국 190개 중 114개 국가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4개의 총영사관, 5개의 대표부가 있습니다.

북한은 47개 상주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3개의 총영사관, 4개의 대표부가 있습니다.



재외동포현황

(단위 : 천 명)



민주평통 해외지역자문위원은 3,278명(43개 협의회, 117개국 거주)

자료 : 외교부(재외동포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 보고한 재외동포현황을 취합, 정리한 것으로서 주재국 인구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 처리 기록, 직접조사방법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

※ 2013년 현재 해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동포는 총 7,012천여 명으로 추산



80여 년 전, 바람과 황무지뿐이던 카자흐스탄의 동토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 그 낯선 땅에서 불굴의 의지와 근면함으로 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현재 카자흐스탄 130여 민족 가운데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우수 민족으로 칭송받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라나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며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는 고려인 3세 강스베틀라나 씨는 올해 중앙아시아협의회 17기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얼마 전 세계한상대회 참가 차 한국에 온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을 만났다.



초기 정착지 우슈토베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자문위원**



“항상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닌 고려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재외동포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 비록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지난 10월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강 자문위원은 고려인으로서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이 타 민족보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고, 고려인 3세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93%에 이르는 등 학력수준 또한 높아 정계와 학계, 문화계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정착촌인 우수토베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1937년 8월 스탈린은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면 고려인들이 일본을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 17만

여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 당시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도착한 곳이 바로 우수토베다. 강 자문위원 가족은 이곳에서 카자흐스탄인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정착했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한국식으로 식사를 해왔고 추석이나 한식 등 고유 명절엔 성묘를 가기도 했다는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 탓도 있지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해지고 스스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이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유도로 시작해서 가라테, 태권도를 두루 섭렵했다. 당시는 소련연방 때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WTF(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는 없었고 북한이 주도하는 ITF(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를 배웠다.



한국의 국기 태권도로 세계챔피언 되다

이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간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WTF 7단, ITF 5단, 합기도 5단, 한국 경호무술 6단의 단증을 갖고 있다.

30년 넘게 운동을 해 왔던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카자흐스탄 국가대표로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땀던 경험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꼽는다. 비록 카자흐스탄 국기를 달고 출전했지만 고려인으로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배워 세계챔피언이 됐다는 사실이 더 부듯했다며 '오리지널' 한국인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의 메달 획득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국립체육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되기도 했다.



스포츠 교류 통해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할 것

하지만 '구소련연방 최고단자'라는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바로 한국어 공부다. 대

사관, 민주평통 그리고 여러 교민단체 등에서 고려인 한글학교를 후원해주고 있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잦은 출장으로 꾸준하게 배울 시간이 없어 아직까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진 못한다고 한다.

강스베틀라나 자문위원은 카자흐스탄 내 문화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펼쳐오면서 민주평통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민주평통이 남북한 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자문위원이 됐다. 1992년 평양 월드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강 자문위원은 "평양에 머물 때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대화 조차 감시의 대상인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17기 자문위원으로서 태권도 등 스포츠를 통해 남한과 북한, 남한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사진. 기자희>

고려인과 교민들이 화합하는 중앙아시아협의회

중앙아시아에는 현재 5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그 선조들의 고향은 주로 북한이다.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4개의 중앙 아시아 국가와 몽골까지 총 6개 국가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17기에는 고려인 33명을 포함해 총 7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4년 전부터 알마티 어린이한국학교와 노년층 교민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지원 중이며 고려인 사회와 한인교포 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고려인 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기원 유라시아 대륙 한민족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교민과 고려인들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공감하는 한편,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장체험형 통일교육**을 원해요!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 대상 마산제일여고 통일아카데미팀

지난 9월 교육부 주최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마산제일여고 통일아카데미팀. 통일아카데미팀은 통일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금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설문 문항을 짜고 '요파만큼' 뽀뽀하게 인쇄를 해서 마산제일여고 학생들은 물론 타학교 학생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는 열정이 돋보인다.

통일토크 참가자

정지혜
(2학년)

통일아카데미팀의 리더로 대회 준비과정에서 슬선수범하며 팀을 이끌었다.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통일 후 남북한 아이들을 편견 없이 가르치고 싶다고

평소 관심 있던 교육 분야, 특히 통일교육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게다가 큰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발표력 자신감 UP!

황현정
(2학년)

이지형
(1학년)

통일교육 연구와 발표를 위해 스카웃된 브레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심지어 2000년생'이라는 최연소 참가자. 교내 행사에서 당차게 발표를 잘 해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팀 내 마스코트 역할까지 맡고 있다.

윤예본
(1학년)



지예



현정



지형



예본

발표대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통일교육은...

현정 ▶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의 발표 주제를 통일교육으로 선택한 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이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란 생각에서 선생님과 함께 주제를 정했어요. 통일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통일공 감대를 넓히는데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예본 ▶ 이번 발표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산제일여고 학생들 말고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부탁 해서 412개의 답변을 받았어요.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니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 고, 통일교육을 받은 뒤에도 별로 얻은 게 없다고 응답한 아이들도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같은 내 용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다는 거였는데, 친구들은 통일교육도 현장참여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형 ▶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 참여형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면 좋을지, 다같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적절한 장소 선정을 비롯해 프로그램 일정·계획, 학생의 적극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DMZ 생태관광이라든지 임진각~도라전망대를 거치는 평화 통일관광, 백마고지관광 등 3가지 코스를 짜봤고,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DMZ 내에 남북 대공원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또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청각 교 육시설이 갖춰진 통일버스를 만들어서 찾아간다는 아이디어도 냈고요.

지혜 ▶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 외에 북한과 남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어

'심지어 2000년생'이라는 최연소 참가자. 교내 행사에서 당차게 발표를 잘 해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팀 내 마스코트 역할까지 맡고 있다.

윤예본
(1학년)



지예



현정



지형



예본

발표대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통일교육은...

현정 ▶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의 발표 주제를 통일교육으로 선택한 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이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란 생각에서 선생님과 함께 주제를 정했어요. 통일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통일공 감대를 넓히는데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예본 ▶ 이번 발표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산제일여고 학생들 말고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부탁 해서 412개의 답변을 받았어요.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니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 고, 통일교육을 받은 뒤에도 별로 얻은 게 없다고 응답한 아이들도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같은 내 용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다는 거였는데, 친구들은 통일교육도 현장참여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형 ▶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 참여형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면 좋을지, 다같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적절한 장소 선정을 비롯해 프로그램 일정·계획, 학생의 적극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DMZ 생태관광이라든지 임진각~도라전망대를 거치는 평화 통일관광, 백마고지관광 등 3가지 코스를 짜봤고,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DMZ 내에 남북 대공원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또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청각 교 육시설이 갖춰진 통일버스를 만들어서 찾아간다는 아이디어도 냈고요.

지혜 ▶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 외에 북한과 남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어

다고 주장했는데 사회자분이 '우리가 각성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자 괜한 말을 했나 덜컥 겁이 나기도 했구요. 그런데 대상 발표를 할 때 우리 팀 이름이 호명되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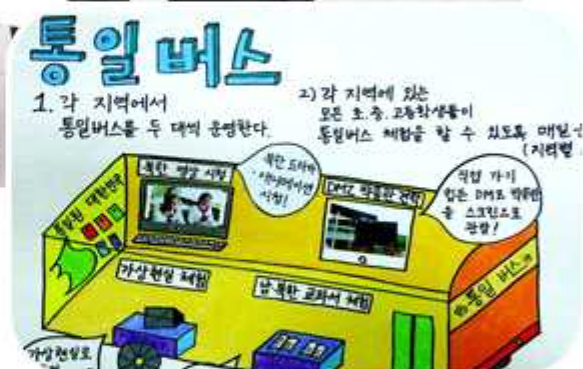


현경 ▶ 제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했는데 제한 시간은 30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필 마이크까지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하고 나니 정말 떨렸어요. 발표가 끝난 뒤 자책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칭찬도 받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어요. 발표 전에 우리가 제시한 통일교육 대안에 허점은 없는지 모니터링해준 선배와 친구들에게 고맙단 말하고 싶어요.

예본 ▶ 제가 학교를 빨리 진학해서 16살인데 아마 그 대회에서도 가장 막내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언니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지혜 ▶ 저와 현경이 예본이는 모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교사가 되거나 교육분야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통일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각자의 꿈을 확고하게 다진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지형 ▶ 저희는 하루전에 선생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동안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 예상 질의응답을 더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저희가 대상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 통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현경 ▶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제 답은 이거예요. 첫째는 남북이 계속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반으로 나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디스어드밴타지를 당하는 건 좀 억울하단 거죠.

지형 ▶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민족이니까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통일을 이룰 사람도 우리 세대니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 ▶ 그 전까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통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저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들까지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본 ▶ 사람들은 남북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통일교육 방안을 들으면서 통일이 이뤄져야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지만, 전 교육을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적 문화적으로 교류해서 친근감 쌓다보면 통일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탈북민 가족 연경이 한국말 배워 중학교 갔어요!

전남 목포시협의회 문춘원·박우리 멘토

노란색 깃털머리에 진한 화장, 검은색 매니큐어를 하고 손등에 문신까지 한 16세 소녀 연경이 (가명). 지난해 가을 탈북민 엄마를 따라 중국에서 한국에 왔지만 우리말을 전혀 몰라 집밖으로 나옴을 싫어 하지 않았고,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다. 연경이 엄마는 그때 전남 목포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중국행 비행기티켓을 끊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일한 낙은 중국 친구들과 주고받는 SNS뿐

전남 목포시협의회 문춘원 멘토가 연경이를 처음 본 건 지난해 11월 탈북민과 함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선상워크숍' 에서였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던 연경이. 엄마는 연경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남한에 와서 돈을 벌었고 네 달 전 연경이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몰라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혼자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중국인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 엄마는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연경이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다.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힘들어서 죽고만 싶었고요. 공부방을 보내려 해도 욕을 하면서 억지로 떠밀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자기도 안타까웠겠죠. 한국말을 모르니까. 저도 북한에서 막 나와 중국에 갔을 때 그 고통을 겪어봤잖아요. 그 심정을 알긴 알죠.”



매주 만나며 한국어로 소통하는 법 가르쳐



▲ 문춘원 멘토

문춘원 멘토는 선상워크숍에서 연경이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본 뒤 아이의 멘토가 되기로 결심하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 박우리 씨(17기 자문위원)에게 부멘토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문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우리 멘토는 “그 때만 해도 탈북민을 처음 본 데다 연경이가 노랗게 염색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 문신이 있었으며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지 10여년이 지난 터라 중국어 회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문학원에 보내는 건 멘토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연경이에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두 사람. 일단 미용과 치장에만 신경 쓰는 연경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또래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것들을 접하게 해주었다. 네일아트 등 미용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시내 상가, 복싱연습장,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리 멘토는 연경이를 4주가량 매주 만나며 적응기간을 가진 뒤, 교재를 사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커피숍에서 음료와 음식을 한국어로 주문해 보는 연습부터 했다. 수업 중엔 되도록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애썼고, 문춘원 멘토도 중국어 번역 어플을 이용해 연경이에게 한 발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 박우리 멘토



한국어 선생님 언제 와요? 너무 기다려져요

박우리 멘토가 보기에 연경이는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사람들이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 마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싫었다고 했다.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혼자 단절된 세계에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꺼리던 연경이는 멘토링을 거듭해갈수록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좌)문춘원 멘토, (우)박우리 멘토



늘 낯설어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연경이가 다른 자문위원들과 한국어로 웃으면서 인사하기도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한국어로 직접 써보기도 했다. 자신이 아껴두었던 보물(?)인 중국계 초콜릿과 사탕 한 봉지를 박우리 멘토에게 건네는가 하면, 박우리 부멘토가 너무 아파서 수업에 나오지 못했던 날에는 '선생님이 너무 기다려진다'며 언제 오시는 지 자꾸 물어보곤 했다. 멘티의 열정과 애정을 확인한 멘토들은 더욱 수업에 집중했고 연경이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느 정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연경이와 엄마의 새롭고 당당한 출발!



연경이는 올해 한겨레중학교에 입학했다. 중국에서 초등교육을 받긴 했지만 작년 겨울만 해도 한국어 한 마디 못했던 연경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몹시 놀라워했다. 목포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문춘원 멘토가 '학생 하나 학교 보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경이 외모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잘라 검정색으로 염색했고 손톱도 깨끗하게 손질했으며,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로 돌아왔다. 문신을 지우기 위해 두 번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 세 번 정도의 리터치를 거치면 훨씬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했다. 특히 연경이는 입학선물로 책가방을 받고는 '너무 좋다'며 싱글벙글 연신 웃었다.

“담임선생님도 연경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는 엄마는 “연경이가 학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다”며 스마트폰으로 연경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문춘원 멘토는 앞으로도 연경이와 같은 학생들을 멘토로 맞이한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연경이가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앞으로 중국어 특기를 살려 훌륭한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계획이다. 올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된 박우리 부멘토는 “멘토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편하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연경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면서 거꾸로 중국어 실력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자문위원은 멘티 연경이가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이런 멘토링활동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사진. 기자희>

연경이 엄마, “외국인인력센터에서 중국어 강의해요”

연경이 엄마는 딸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다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학에 재학 중이고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인근 공단의 외국인 인력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중국 통역 일을 하거나 중국어권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기초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딸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기숙사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 연경이는 ‘집에 오고 싶다, 엄마 보고싶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한국어만큼은 반드시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연경이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일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했다.



연경이는 요즘 엄마에게 한국어로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곤 한다. ‘사랑해’라는 남한 말이 처음엔 ‘진짜 낮간지럽고 어색했다’지만 딸의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에 마냥 행복한 기분이 든다. 연경이를 중국에 남겨뒀을 때 엄마는 늘 딸 생각뿐이었다. 새벽바람을 맞으며 조선소로 일을 다닐 때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애절했었다’는 엄마는 결혼등록증이 없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라오스나 태국 등을 거쳐 데려오는 위험을 딸에게 감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4번의 시도 끝에 한국 의사가 중국으로 가서 친자검사를 한 뒤 데려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데려다 놔더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러다 애가 벗어나는 게 아닐까,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멘토링을 맡으면서 연경이가 선생님 몇 시에 오시냐고 매번 기다리게 될 정도가 됐죠. 제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보답을 못해드려도 마음은 물론이고, 몸으로라도 때울 수 있다면 봉사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어요.”





2015년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결선과 중학생 역사퀴즈왕대회 예선이 모두 치러지고 이제 12월로 예정된 퀴즈왕대회 결선만을 앞두고 있다. 민주평통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두 가지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뜨거운 참여 열기와 많은 관심 속에 전국 대회로 치러졌다. 그렇다면 이들 대회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와 성과를 남겼을까. 각 학교에서 통일골든벨과 역사퀴즈왕대회 준비를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대회 이야기를 들었다.

도움말 주신 선생님

중학교

신서중학교 김진희, 김화중학교 박성민, 옥천중학교 김아련,
물금동아중학교 문지혜

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김신길, 창원남자고등학교 김신철,
광덕고등학교 이정우, 울산 성신고등학교 김영하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져 교내 예선 거쳐요!

서울 신서중학교 김진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대회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지도하거나 방향을 안내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다고 말했다. 출전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교내 예선을 거쳐 선발할 정도라고. 광주 광덕고등학교 이정우 선생님도 1~3학년을 대상으로 통일골든벨 교내 경시대회를 열어 학생들을 선발한 뒤,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와 국난 극복사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나눠줘 예선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학업에 열의가 많은 학생들이라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민주평통 홈페이지에서 교재 등을 다운받아 나눠주고 함께 문제풀이를 하거나 방과 후 시간 또는 점심, 저녁시간에 모여 스터디그룹을 이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밖에 선생님들이 담당 교과 수업에서 통일교육 겸 통일골든벨 대회 준비 겸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자신감과 발표력이 향상됐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통일골든벨과 역사퀴즈왕대회의 성과로 '자신감 향상'을 꼽았다. 구미고등학교 김신길 선생님은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입상을 하니까 자신감이 높아진 데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등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옥천중학교 김아련 선생님은 3학년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2학년 학생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선배들처럼 내년에 입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울산 성신고등학교 김영하 선생님(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분도 좋지만 학교에서 격려차원으로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한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외부포상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배려해주는 것. 게다가 학교단체상을 수상할 경우 입상하지 못한 학생 전원에게도 상장을 주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주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말했다. 최고상인 통일상을 받은 모 지역의 학생은 평소에 조용히 있던 아이였는데 예전 같으면 아는 문제가 있어도 손을 안 들었겠지만 이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했고 발표력도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고려, 조선의 역사는 많이 접하지만 근현대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근현대사를 접하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골든벨이나 중학생 역사퀴즈왕대회는 근현대사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수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았다. 물금동아중학교 문지혜 선생님은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곤 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과정을 배우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 배우고 있는 수업과 연계되다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대회 날 오전에 역사수업을 하고 오후에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날 배운 내용이 문제로 출제돼 학생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다는 학교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 역사를 많이 접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길 바랐다.



떨리기도 했지만 축제처럼 즐거웠어요!

대회 당일에는 '예상외로' 큰 대회라는 것을 알고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지만 연예인 사회자도 볼 수 있고 아이들그룹들의 공연도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마치 축제처럼 대회를 즐겼다고 한다. 김영하 선생님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화공연도 즐기고 직접 나가 춤도 추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지혜 선생님은 수업이 있어서 직접 대회 인사를 못했지만 물금동아중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학생들로부터 문자가 쇄도했고 '선생님 거기 다녀오니까 마음이 커진 것 같고 기분이 떨리면서도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이 성장한 것 같고 가르친 보람도 있었다고 했다.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고려, 조선의 역사는 많이 접하지만 근현대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근현대사를 접하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골든벨이나 중학생 역사퀴즈왕대회는 근현대사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수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았다. 물금동아중학교 문지혜 선생님은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곤 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과정을 배우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 배우고 있는 수업과 연계되다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대회 날 오전에 역사수업을 하고 오후에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날 배운 내용이 문제로 출제돼 학생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다는 학교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 역사를 많이 접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길 바랐다.



떨리기도 했지만 축제처럼 즐거웠어요!

대회 당일에는 '예상외로' 큰 대회라는 것을 알고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지만 연예인 사회자도 볼 수 있고 아이들그룹들의 공연도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마치 축제처럼 대회를 즐겼다고 한다. 김영하 선생님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화공연도 즐기고 직접 나가 춤도 추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지혜 선생님은 수업이 있어서 직접 대회 인사를 못했지만 물금동아중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학생들로부터 문자가 쇄도했고 '선생님 거기 다녀오니까 마음이 커진 것 같고 기분이 떨리면서도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이 성장한 것 같고 가르친 보람도 있었다고 했다.



혹한을 횡단하는 북한의 겨울나기

이 지 순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

이육사의 시 '절정(絶頂)'에서 북방의 겨울은 '매운 계절'로 표현된다.

유치환은 시 '북방 10월'에서 '시월은 벌써 죽음의 계절의 시초'라고 단언한다.

'남빛 하늘' 아래 '삭풍에 남은 고량(高粱)대'가 홀로 부대끼는 북방의 겨울은 가혹한 시련을 가져온다. 남한은 10월에 첫서리가 내리고, 북한에서는 눈이 내린다. 북한의 기나긴 겨울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된다. 이때 모든 강은 얼어붙는다.

길고 혹독한 겨울나기는 반년양식인 김장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겨울 횡단, 김장

북한에선 이르면 10월부터 '반년양식'인 김장으로 겨울나기를 시작한다. 양강도와 함경도 지역은 10월에, 평양 이남은 11월에 담근다. 대개 11월 초에는 북한 전역에서 김장이 마무리된다.

겨울철 주요 채소 공급원이자 부식 마련을 위한 김장은 공장과 기업소, 군부대, 농장 등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북한의 주민들이 총동원되는 '김장전투'인 셈이다. 북한의 김장은 7월에 배추 씨 뿌리기에서 시작된다. 대개 김장용으로 배급되는 배추는 아주 잘 받으면 1인당 100kg 정도이다. 수분, 흙, 걸잎 등이 다 포함된 무게로 다듬고 나면 무게는 훨씬 줄어든다. 떼어낸 걸잎은 말려서 시래기로 먹는다. 국가 배급이 없는 경우 기업소나 농장별, 개인별로 김장에 쓸 배추를 직접 구해야 한다. 기업소나 농장에서 배추 받을 분양하여 단체로 김장용 배추나 무를 경작하기도 한다. 텃밭이 있는 경우 직접 배추를 길러서 김치를 담근다. 여유가 있다면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배추에 들어갈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과 같은 양념은 국가가 배급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이 구하는 재료가 되었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소금에만 절인 '백김치'를 담근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별, 지역별로 김치의 맛이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어 미나리가 많이 나는 황해도에서는 김장에 미나리를 넣어 풍미를 더하고, 바닷가 인근 주민들은 명태나 오징어를 넣어 담근다. 김장의 양이 많은 만큼 담그는 김치의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배추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채김치, 동치미, 갓김치, 양배추 김치를 많이 담근다.

반년양식인 김치는 '움'에 보관한다. 김치움은 감자움 형태와 유사하다. 마당에 굴을 깊게 파서 그 안에 김치 독을 묻어 겨우내 보관해서 먹는다. 때로는 땅을 파서 비닐 주머니를 넣고 김치를 보관하기도 한다.



▲ 황해북도의 김장풍습

두 번째 겨울 횡단, 땀과 방목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북한의 추위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실내에서 두꺼운 옷에 털모자까지 써도 견디기 어려운 추위다. '땀감전투'는 김장전투와 함께 겨울 생존을 위한 필수 작업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집은 '남향집'이다. 햇빛이 잘 들기 때문이다.

대개의 북한 주택은 아궁이를 사용한다. 아파트에도 아궁이와 굴뚝이 있다. 난방의 주 연료는 석탄과 화목(火木, 땀나무)이다. 김장용 재료뿐만 아니라 땀감 배급도 원활하지 않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이 구매할 여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석탄, 구공탄, 목재 같은 땀감을 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구하러 다녀야 한다. 평양이나 탄광 인접 지역에서는 땀감으로 석탄을 주로 쓰지만 추워질수록 석탄 값이 올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 외 지방에서는 나무가 쓰인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땀감 마련을 위해 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남벌과 도벌 때문에 산림훼손이 심하고 민둥산이 많은 북한에서는 이 역시 어려운 일이다. 옥수수뿌리, 옥수수대, 벚짚, 콩짚, 강가의 잡초, 가랑잎까지 줍고 나무뿌리까지 캔다. 얼어붙은 들판과 거리에는 여성이나 노인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땀감을 모으러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북한 겨울모습

땀감걱정은 학교나 기업소,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월동준비를 시작하는 북한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화목동원'을 시켜 교실난방 준비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인근 산에서 땀감을 준비하고, 석탄이나 나무를 할당해 숙제로 내주기도 한다. 화목비 마련이 쉽지 않은 가정은 학부모와 아이가 직접 산판이나 들을 뒤져 솔방울이라도 찾아낸다. 여유 있는 학부모는 시장에서 땀감을 사서 내기도 한다.

난방시설이 열악하고 땀감마련도 어려운 북한에서는 추석이 지나면 월동준비로 방풍작업을 시작한다. 창

문 틈은 문풍지로 막고, 비닐을 구해 덮어 열손실을 방지하고 바람도 막는다. 출입문 안쪽에는 덧문을 달고, 창문은 바깥까지 비닐로 씌운다. 처마에서 대문까지 전체를 비닐로 덮어 한 채의 비닐하우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학교에서도 문풍지를 바른다. 고학년은 직접 바르지만, 저학년은 학부모가 대신 문풍지를 붙여준다.

북한의 모든 건물이 매서운 삭풍을 피해 문풍지와 비닐로 중무장하고, 집집마다 김장전투를 끝내고 나면 겨울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

세 번째 겨울 횡단, 놀이와 간식

길고 긴 겨울을 횡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간식과 놀이이다. 평양에서는 군고구마와 군밤을 구워 파는 매대가 있어 겨울철 간식으로 인기를 누린다. 시골에서는 감자옹에 저장된 감자를 꺼내 구워먹고, 말린 옥수수를 2~3일씩 삶아 강냉이죽을 해 먹는다. 혹독한 추위에 감자가 얼면 '언감자떡'을 해먹기도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도 아이들은 즐겁게 이겨낼 수 있다. 특별한 간식이 없어도 아이들은 겨울철 신바람으로 추위를 견디고 이겨낸다. 그것은 바로 놀이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눈싸움을 하고, 얼음판에서는 팽이를 돌린다. 썰매로 하는 아이스하키 같은 외발기 타기는 인기 있는 겨울 놀이 중 하나이다. 양강도 지역 아이들은 스키도 탄다. 스키장비가 낙후되었지만 눈 많고 추위가 강한 양강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겨울 스포츠인 셈이다.



◀ 사람들 붐비는 군고구마 매대

▲ 눈썰매타는 북한아이들

김남조는 그의 시 '생명'에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얼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 눈 눈송이로 온다.'고 읊었다.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겨울은, 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이겨내고 거쳐야 하는 통과제의이다. 북한의 겨울나기는 그 과정이 시련이다. 채찍처럼 날리는 매운 추위는 많은 생명을 꺼뜨리고 가혹한 운명으로 내몰지만, 봄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좀 더 빨리 한국에 올 걸 후회했어요

13살 무렵 북한을 탈출한 뒤 23살이 되어서야 한국에 온 민호(가명, 28세)는 중국에서 한국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10년간 몸을 숨기며 살아왔다. 지금은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며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좀 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후회했지만, 지금이라도 남한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돼 다행이라며 웃었다.

★남한 PC방에서 온밤을 샀어요

함경도가 고향인 민호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와 산에 숨어 살았다. 벌목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이후 헤어져서 안타깝게도 생사불명이 되었고 엄마는 남한으로 왔으며, 민호는 중국 내 한 종교공동체에서 10년을 살았다. 2011년 남한으로 건너와 엄마와 함께 탈북민 임대아파트에 살게 된 민호. 그는 '이제야 내 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6일정도 굶다가 허약 3단(영양실조) 상태에서 북한을 나왔어요. 중국에선 다 같이 숨어 지내야 했고 거주지가 발각돼 잡혀갈까봐 연길이나 청도 등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다 보니 혼자만의 공간이란 게 없었는데 아파트에 오고부터는 마음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어서 더 없이 좋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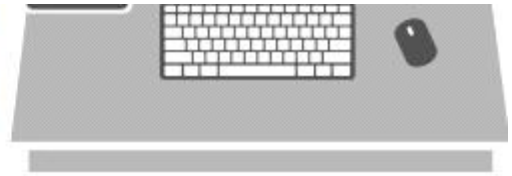
민호는 매달 소정의 탈북민 정착금을 받게 됐지만 용돈이란 걸 처음 손에 쥐게 되자 계획성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핸드폰을 샀는데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내 내 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첫 달 데이터 요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청구됐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남한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터라 PC방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PC방에만 가면 '온밤을 새고'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곤 했다고. 또한 중국에서는 주로 걸어서 다니곤 했



는데 남한에서 '택시'라는 걸 타보니 편안하고 좋아서 자주 택시를 이용했다. 그 결과 두번 째 달에도 민호는 용돈이 부족해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PC방도 가고 싶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싶었던 민호는 고민 끝에 스스로 돈을 벌기로 했다.



민호는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조개 이름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냅킨이나 포크, 나이프란 말도 몰랐거든요. 칼이라고 하면 되지 나이프라고 하니깐 모(뭣)아들죠. 그 뒤로 제조업체 생산라인에도 있었는데 스파나, 뽕치, 파이프 같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을 몰라 적응을 못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도구를 써본 적이 없으니 뭘 가져오라고 시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369 게임을 MT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도 중국에서 몇 년을 체류한 탈북민들은 막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남한 적응이 빠른 편이다. 컴퓨터 켜는 방법도 몰랐다는 학생, 가마에 밥을 해먹다 보니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몰랐다는 아주머니까지 북한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은 생활용품 사용법부터 배워가야 했지만 민호는 지하철을 처음 타본 것 외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고 공동체에서 남한 교과서로 기초학력을 쌓은 덕분에 검정고시도 가볍게 패스했다. 그러나 수업시간만큼은 늘 긴장이 됐다. 민호는 고향이 북한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할까 봐 중국에 조기 유학을 다녀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말투가 어색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도 북한말이 튀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말투가 이상하면 아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도저히 손 들고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날은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시다가 제 이름 옆에 '외(외국인)' 자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정말 완전히 따분해(당황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겨우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고향이 어딘지 묻는 것 외에도 황당한 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술 먹기 게임이다.

"학과 아이들과 다 같이 MT를 갔는데 369 술 먹기 게임을 하는 게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게임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 배워서 하려니까 게임에서 지기만 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애들 말로는 제가 바로 테이블에 광 얹어져 잤대요. 그 후부터 '아 술은 조금씩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죠."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중국에 머물렀을 때 민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한다. 탈북 고아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공부까지 시켜준 종교인들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남한 대학에 다니면서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면 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 미안해질 것 같아요. 5급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어렵지요. 제가 나이가 어렸다면 도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서른 살이니 목표를 낮춰 잡

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한국에 올 걸 그랬어요.”

하지만 민호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배우고 익혔던 중국어가 또다른 경쟁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수업시간마다, 시험 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영어, 외래어들은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할 자신은 있다.

“저는 출발선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남한) 애들이랑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놀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도서관에 갔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도서관에서 그 날 배운 부분을 읽어보고 다음날 배울 것도 미리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글. 기자회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는 10월 1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평화통일 청년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남북한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청년이여, 통일 낙관주의자가 되자!

행사는 민주평통 청년위원회가 주관하고 NAUH(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동아시아청년연맹, 북한인권학생연대,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사)한국청년회의소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으며, 일반대학생을 포함한 38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통일이야기,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눴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후 70년 간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토대 위에 8천만이 행복한 세계 속 통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청년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일각에 드리워진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통일 낙관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청년 통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운 청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정신이 있었다”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도 열정과 꿈을 한데 모아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데 청년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또한 김풍식 이북도민청년연합회 대표의장은 "매년 많은 실항민들이 이북 고향을 그리다 돌아가신다"며 "이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한 통일의 역군으로 앞장서 달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통일이야기, 어디까지 해봤니?

어어 본 행사인 토크콘서트가 시작됐다. 개그맨 심현섭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에서는 김석향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와 안제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가 통일멘토로 나서, 대학패널로 참석한 유은실(전북대), 지철호(동국대), 조미영(성균관대) 학생들과 함께 남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해 열띤 토크를 펼쳤다.

대학생 패널들은 요즘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할 수 있는 취업, 결혼, 군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통일로 인해 완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다른 누구보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석향교수

이 자리에서 김석향 교수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진로와 관련해 "평소 꾸준히 남북한 관계와 세계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상식을 쌓아두면 국제협력기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있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조미영(성균관대)

▼ 유은실(전북대)



▲ 지철호(동국대)

진정한 통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이다

또한 탈북청년과 남한의 젊은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만큼 '통일이 왜 대박인가',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정부에 플랜이 있는가', '북한에도 빈부격차가 있는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보다 화합된 마음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통일멘토로 참석한 안제노 연구위원은 통일을 결혼에 비유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가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남북한이 진정 하나 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안제노 박사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 청년이 앞장선다!



▲ 북한실상을 보여주는 장마당

행사는 공동주최기관장과 민주평통 시도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 청년이 앞장선다'는 힘찬 구호와 함께 통일실천결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열정적인 연주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과 아코디언과 트럼펫 연주를 선보인 탈북민 청년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져 장내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토론장 외부에서는 부대 행사로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장마당 음식, 인조고기밥과 두부밥을 직접 시식할 수 있는 북한음식체험전과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마당 물품 및 북한 인권사진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 북한 인권사진 전시



▲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

“한민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개그맨 심현섭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통일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는 개그맨 심현섭 씨는 이번 ‘평화통일 청년 한마당’의 사회를 맡아 ‘통일 관련 행사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종일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청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현섭 씨는 “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상을 볼 때마다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통일은 빨리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

경남지역회의 정상문 청년위원장



통일문제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관심 고취를 위해 고민이 많았다는 정상문 경남지역회의 청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 문제를 보다 즐겁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통일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청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은 빨리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서 북한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문제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최은정 17기 청년자문위원

대학생들과 함께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최은정 청년자문위원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드물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통일이나 통일교육에 대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란 반성과 함께 앞으로 통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역시 청년들이 앞장선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저부터 생활 속 작은 통일운동이나 통일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 동행기

평화통일 청년 한마당, 이렇게 봤어요!



▶ 유재승 청년자문의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평소 국제 관계, 특히 한반도의 정세와 통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개회사 중에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를 병합해 다른 사람들 또한 통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적극 나서고 싶습니다. 통일은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입장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현숙

젊은 세대가 주도해서 통일이야기를 나누고 탈북민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통일 관련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사는 장마당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대행사도 있어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크 중에는 유은실 씨가 직접 탈북민들을 만나고 겪은 일을 얘기 해주신 게 감명 깊었어요. 또 한 탈북민께서 남한에 적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겪었던 배고픔과 고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었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와 닿았어요.



▶ 강릉원주대학교 통일동아리 학생들(박상준, 이원복, 김태완)

한 교수님께서 “어른들은 북한 주민들과 비슷한 삶도 경험해보았으므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공감할 수 있는 반면에 젊은 학생들은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뉴스나 신문에 화두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로 이야기해요.(태완)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상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건 맞아요. 통일비용을 자신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 북한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통일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원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중국지역회의,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염원 임정 대장정 완주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세계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대륙을 횡단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대장정을 완주했다.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 온 청소년 33명은 26일 중국 다롄 시의 류순감옥에서 출정식을 갖고 단둥과 충칭, 류저우, 광저우, 창사, 우한, 항저우 등을 거쳐 상하이 훙커우공원에 이르는 1만5천리 길을 지나왔으며, 중국 각지의 임정 청사와 북한 중국 간 접경지대, 황푸군관학교 등을 방문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다. 한경대 수석부의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면, 통일시대를 이룰 기회와 사명은 청소년에게 주어져있다"며 "선열의 독립의지를 통일염원으로 승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 4분기 회의 및 독일연구팀 초청 워크숍 개최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10월 15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경대 수석부의장, 박찬봉 사무처장, 10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4분기 정책건의의 대주제로 '박근혜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선정,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의 성과들이 한반도 통일여건 개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선 추진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건의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의안은 12월 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의·채택 과정을 거쳐 의장인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 후에는 기획조정분과

위원회 주관으로 독일통일연구팀 초청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독일통일연구팀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교수를 비롯해 미하엘 호프만, 라이너 질버아이젠 등 12명이 참석했다.

제17기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통은 '2015년도 제4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10월 13~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제17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날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산업·통상, 건설·교통, 농수산임 3개 직능을 대표하는 전국 자문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해 첫째 대한민국의 통일지지와 능력, 둘째 국제사회의 지지,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통일염원 등 3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강화 하면서 통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궁영 교수는 한반도 통일정세와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강원 지역회의, 2015 전국남녀웅변대회 열어



강원 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10월 15일 강원도 평창 이승복기념관에서 평화통일과 평화로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2015 전국남녀웅변대회'를 열었다. 전국 예선대회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32명의 학생과 박용성 강원부의장, 박찬봉



사무처장, 이승복 유가족, 18개시군 협의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기다림'을 주제로 평화통일과 민족화합의 염원을 호소한 오윤주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북유럽협의회 폴란드 한글학교에서 통일 사생대회 실시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에서는 10월 3일 폴란드 브로츠와프 내 한글학교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통일교육용 동영상 시청을 통해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실력을 겨룬 결과 5학년 주세훈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북유럽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학교에 통일 관련 교육자료를 보내고 통일 사생대회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약속했다.

호주협의회 & 서울 은평구협의회 협약 체결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우대)는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와 10월 8일 은평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유학지원 프로젝트를 호주에서 진행하기 위해 '호주협의회 & 은평구협의회 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지역협의회는 차세대 탈북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인재 발굴과 영어 구사력 증진, 경제력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에 취업한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 2015년 청소년 통일백일장 글짓기대회 열려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홍순평)는 10월 9일 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과 인솔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청소년 통일백일장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화통일' 관련 자유주제 글짓기와, 학부모 한줄 통일 생각 작성, 화합의 장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수상자 시상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 등이 있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경북 경주시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경북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와 10월 5일 경주시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6일 지역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3일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시민들과 함께 '통일대박 지도자 양성과정 제 2강'을 열었고,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김유영)는 14일 지역민, 노인대학어르신 등과 함께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강원 영월군협의회



▲ 강원 삼척시협의회



▲ 경북 영덕군협의회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는 15일 기관 단체장, 시민들과 함께 '민주평통 시민학교 3기 개강식'을 개최했으며 같은날 경북 영덕군협의회(회장 최길동)는 공무원, 군민들과 함께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서울 중구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10월 1일 대학교 탈북대학생 동아리 회원, 탈북대학생들, 북한인권학생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분과위원장 지성호 지문위원과 함께 '남북 청년이 함께하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5일 경북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5년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 부산 동구협의회



▼ 경북 군위군협의회



▲ 경북 경산시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7일 부산선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열었고 같은 날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의흥초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초등학생 눈높이 통일교실(2차)'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도 경산중학교 학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 제주 지역회의

▼ 전남 무안군협의회



제주 지역회의의 청년위원회(부위원장 김순택, 위원장 김치용)는 8~10일 청년자문위원 및 대학생 통일동아리 학생, 동아리 지도교수들과 안보견학을 다녀왔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9~10일 경기도 파주 DMZ 안보현장 일대에서 무안군 통일동아리 대학생들과 '대학생 통일동아리 통일워크숍'을 개최했다.



▲ 울산 중구협의회



▲ 경북 청도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울산 중구협의회청년위원회(부의장 김순택, 회장 이진용)는 13일 성신고등학생들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일대를 둘러보는 '2015 청소년 통일 안보견학'을 실시했으며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이날 이서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개최했다.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4일 가평북중학교 전교생,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 경기 부천시협의회



▲ 경기 광명시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5일 부천남중학교학생들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및 용산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청소년 안보견학'을 개최했으며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은 16일 가림중학교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대화'를 열었다. 같은 날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충원고학생들과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서울 양천구협의회



▲ 전북 김제시협의회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10월 7일 연미향마을에서 자문위원 및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농촌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7~11일 김제벽골제 지평선축제장에서 축제관광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을 판매했다.



▲ 서울 중랑구협의회



▲ 전북 전주시협의회



▲ 충북 진천군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9일 구립망우잔디운동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5회 경평축구대회'를 열었다.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4일 어깨동무하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멘토-멘티 결연을 정비하고 신규 멘토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깨동무하기 멘토기초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등으로 '문화체험활동 및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통일문화 확산



▲ 강원 동해시협의회



▲ 충남 청양군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10월 3~4일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염원 '국가사랑 나라사랑'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3일 청양군 제17회 참승문화축제에서 '남북통일장승대제'를 열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4일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고렝카 무용단을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 전남 구례군협의회



▲ 경북 영주시협의회



▲ 인천 서구협의회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4~11일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둔지에서 '평안북한 전통음식점'을 열어 북한음식을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6일 지역 인근에서 주부환경연합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는 여성단체회원, 다문화여성,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여성이 그리는 통일공감의 날' 행사를 열었다.



◀ 강원 횡성군협의회

▼ 경북 상주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7일 '광복 70주년 제5회 삼백문화다례제'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명상차행다례제'를 실시했으며, 같은 날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원용)는 횡성한우축제장 특설무대에서 '2015년 평양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다.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정용)는 8일 일해공원 상설무대에서 기관단체장, 합천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한라예술단을 초청해 '평화통일기원 탈북민 초청 통일한마당'을 개최했다.

◀ 경남 합천군협의회



▲ 광주 동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광주 동구협의회 청년위원회(회장 김행자, 청년위원장 오세웅)는 7~11일 열린 '충장축제 추억&어울림'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10일 설악문화재 공연장에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다.



▲ 전남 곡성군협의회



▲ 부산 사상구협의회

▼ 대구 달서구협의회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는 제15회 곡성심청축제장인 섬진강 기차마을 주무대에서 곡성 군민, 관광객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 통일 아라리오 공연'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날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삼락생태공원에서 광복70주년기념 '통일맛이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1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남북화합한미당 체육대회'를 열었고,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15일 오창호수공원 광장에서 '2015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영화제'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16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충북 옥천군협의회 ▶



통일안보현장 방문

▼ 전북 지역회의



▲ 인천 동구협의회

▲ 경기 오산시협의회



전북 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판문점으로 '통일안보현장'을 견학을 다녀왔으며, 인천 동구협의회(회장 백승중)는 2~3일 해군3함대와 흥도일대로 지역인사들과 함께 '2015 사회단체장 초청 안보시찰'을 다녀왔다.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6일 오산시물항기실버합창단들과 함께 양구DMZ를 견학했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이의현)도 양구군 중동부전선 일대로 안보시찰을 다녀왔다.

◀ 서울 마포구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 경기 하남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3일 이승복기념관에서 '2015 지문위원 안보현장견학 및 연수'를 개최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14일 서부해안 DMZ(인천강화지역) 일원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 참여 시민들과 함께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광주 광산구협의회



▲ 전남 광양시협의회

▼ 대구 남구협의회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언)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16일 탈북민, 다문화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을 위한 역사기행' 행사를 개최했으며,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권)는 17일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안보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날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통영 한산섬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제14회 통일여성캠프를 개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밴쿠버협의회(회장 서병길)는 9월 16일, UBC 천센터에서 교민들과 캐나다 주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과 해금 연주, 캐나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진행됐으며 캐나다 음악인이자 가야금 연주자인 이종은 부회장은 직접 작곡한 9곡, 2곡의 편곡 음악을 선보였다. 서병길 협의회장은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가 아직도 중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음악회는 평화통일을 기원함과 동시에 이들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라고 밝혔다.



베트남협의회(회장 유명식)는 10월 2일 호치민시 9군 조국전선 연합회, 여성 연합회 등과 함께 '제 2회 통일 대박 자전거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자전거는 베트남협의회 임원진과 여성분과위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증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통일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전거로 종주할 그날을 기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한편 베트남협의회는 지난해 농촌에서 장거리를 통학하는 롱안성 견독현 락안 초등학교에 30대의 자전거를 기증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9월 28일 '통일정책강연회'를 실리콘밸리 코트라 무역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재미탈북민연대(NKInUSA) 조진혜 대표가 기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국 내 탈북민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동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날 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문제, 한미동맹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협의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시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단체장 등과 함께 '통일기원 한마을 걷기 대회' 행사를 진행했다.



남미서부협의회(회장 이학락)는 9월 20일 '한인의 날 및 이민 50주년 축제' 현장에 통일홍보관을 개설해 아르헨티나 교민 및 현지인들에게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미서부협의회는 스페인어로 제작한 대한민국 홍보 팜플렛을 준비해 모자와 함께 배포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는 토론토한인회와 함께 9월 26일 한인회관에서 '제 11회 평화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캐서린 원 온타리오주 수상을 비롯, 패트릭 브라운 온타리오주 보수당 대표 등 주류사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많은 교민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가족단위로 참가한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마라톤 결과 10킬로미터 남성 부문은 42분 18초를 기록한 이수 씨가 대상을 차지했고 여성은 47분 13초를 기록한 서제니 씨가 차지했다.



시애틀협의회(회장 이수진)와 워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는 9월 18일 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를 초청해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자문위원간 상호교류 및 제17기 사업 보고차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등 외교 현안을 주제로 문덕호 시애틀총영사의 '최근 남북관계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강의를 들었다. 이어 김은아 영사는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 신청과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크게 확대해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선거의 참여는 재외국민의 권익과 정책 반영의 통로가 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LA지역협의회(회장 임태량)는 5일 '탈북민 지원 및 LA협의회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과 LA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 북한 인권개선 청년단체인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와 김건우 실장, '탈북미녀'로 잘 알려진 신은하 씨 등 탈북자 3명이 연단에 섰다. 또한 홍명기 운영위원은 지성호 대표 등 3명과 LA인근에 거주하는 탈북민 28명에게 총 2만 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하늘에 순응한다'는 뜻을 가진 순천(順天).
햇빛을 받아 금은색으로 빛나는 순천만의 드넓은 갈대밭과 갯벌,
그 안에서 매일 '난장'을 벌이는 온갖 미물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의 섭리가
버티고 있다. 정해진 운명과 인연을 거스르고 세월을 역행하려는 건 인간의 욕심,
나약한 마음뿐이다. 한참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숲 가운데서 지친 마음이 길을 잃는다.

≡ 가을 순천만의 주인은 갈대와 갯벌, 철새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자리한 순천만의 주인은 갈대와 갯벌, 그리고 철새들이다. 전 세계 5대 연안습지로 10여 년 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이곳엔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200여 종 넘는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안쪽, 광활한 갈대밭 사이로 난 데크를 따라 걷다보면 낙엽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갈대꽃이 옷에 스치운다. 갈대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건 순천만의 검은 갯벌이지만, 이따금 불어오는 해풍에는 갯내음이 묻어나지 않다. 갈대 잎은 갯벌 냄새를 걸러내고 대신 제 몸이 부대껴 만들어낸 서걱대는 소리를 바람에 싣는다.



◀ 갈대밭을 휘돌아 순천만으로 빠져나가는 S자형 물길
▼ 갈대밭 길을 걷는 관광객들



갯벌 ▲
철새들 ▶

갈대밭 옆 S자로 휘감겨 도는 수로에는 벌써 겨울 철새들이 자리를 잡았다. 고요한 수면을 힘차게 박차 오르는 철새 떼는 생동감 넘치는 한바탕 군무를 펼치다 어디론가 사라진다.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들면 민물도요와 노랑부리저어새들이 조용히 사색에 잠기고, 자그마한 농게와 칠게, 팡둥어들이 가만가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사람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한 갈대숲 한 가운데 서서 밀물처럼 차오르는 고독감에 몸서리를 친다. 마음은 온통 뿌연 해무(海霧)로 가득 찬다.

≡ 순천만 제방길에서 만나는 김승옥 문학관

사실 순천을 찾은 건 김승옥 때문이었다. 그의 소설 '무진기행(霧津紀行)'에서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 같고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내놓은 입김 같다'고 묘사된 무진, 아니 순천의 명물, 해무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성마른 20대의 겨울, 차가운 골방에 앉아 그의 소설을 읽으며 세상을 미리 배웠던 기억이 났다. 소설 속 무진은 김승옥의 고향 순천 일대를 배경으로 창조한 가상의 공간이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그러했듯이 마음은 잠시 이곳에서 일탈할 곳을 찾는다. 김승옥 소설의 매력은 인간의 욕망과 가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때론 음험하기까지 한 정조가 가득한 그의 작품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 그건 인간 본성이 가진 아이러니를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리라.



▲ 김승옥 문학관 외부



김승옥 문학관은 순천만 공원 주차장에서 천변을 따라 1.5km 가량을 걸어가거나 갈대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 김승옥문학관 역에는 딱정벌레를 닮은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가 연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몇 해 전 이곳 문학관에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노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그는 없었다.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해 문학관 옆 작은 방에서 옛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집필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눈발 한 가운데 초가집 모양으로 조성된 김승옥 문학관 옆에는 한국 아동문학의 지평을 넓힌 고 정채봉 선생의 문학관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 김승옥 문학관 내부

≡ 담장 너머 밥 짓는 연기가 솔솔, 낙안읍성민속마을

순천의 서쪽 끝에 자리한 낙안읍성은 이날 축제로 들떠 있었다. 낙안읍성은 조선 초인 1397년 김빈길 장군이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흙으로 쌓았던 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이후 일제에 의해 폐군되었다가 1984년 낙안읍성민속마을로 재탄생했으며, 주민 120세대가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성곽 계단을 이용해 성벽 위에 올라서면 정면으로는 남도의 너른 평야와 야트막한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뒤편으로는 용기종기 초가지붕을 맞대고 있는 낙안읍성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 낙안읍성 성곽

읍성 안으로 들어가 골목길 양 옆으로 늘어선 낮은 들담을 넘어다보면 소박하고 투박한 옛 시골마을의 정취가 들쭉 묻어난다. 초가지붕 위에 소담하게 앉아있는 흰 박 두세 개, 샘 옆에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 집 뒤 자그만 텃밭에 심어진 푸릇한 채소와 묵화, 담과 담 사이 삐뚜름하게 걸려있는 싸리문까지 둘러보고 나면 마음은 더욱 어려워진다. 근심 걱정하나 없이, 뭐 하나 바쁠 일도 없이 온 동네를 들고양이처럼 싸들아다니던 어린 시절의 내가 그곳에 있다.



▼ 전통혼례





▲ 낙안읍성 마을 전경



순천의 별미, 꼬막정식과 짱뚱어탕

순천 낙안읍성을 빠져나와 벌교읍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조정래 길'을 만난다. 순천시는 소설가 조정래 씨가 태어난 곳 일대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부터 휴전 직후까지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그려낸 그의 대작 '태백산맥'에는 벌교 꼬막에 대한 묘사가 몇 군데 나온다. '간간하면서 즐깃즐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맛'이라는 겨울 꼬막.

11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의 이른바 '꼬막의 계절'이다. 순천과 벌교에는 꼬막정식을 파는 식당들이 여럿 있는데 꼬막 정식을 주문하면 꼬막전, 양념꼬막, 꼬막 회무침, 꼬막탕(찌개), 삶은 꼬막 등 다양한 꼬막 요리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나온다. 짭조름하면서 감칠맛 나는 꼬막 본연의 풍미를 잘 살린 음식들이 한 상 가득이다. 짱뚱어탕 또한 순천의 별미로 꼽힌다. 순천만 갯벌에서 나고 자란 짱뚱어탕은 맛이 담백하며 보양식으로 선호된다.



▲ 낙지볶음

▼ 벌교꼬막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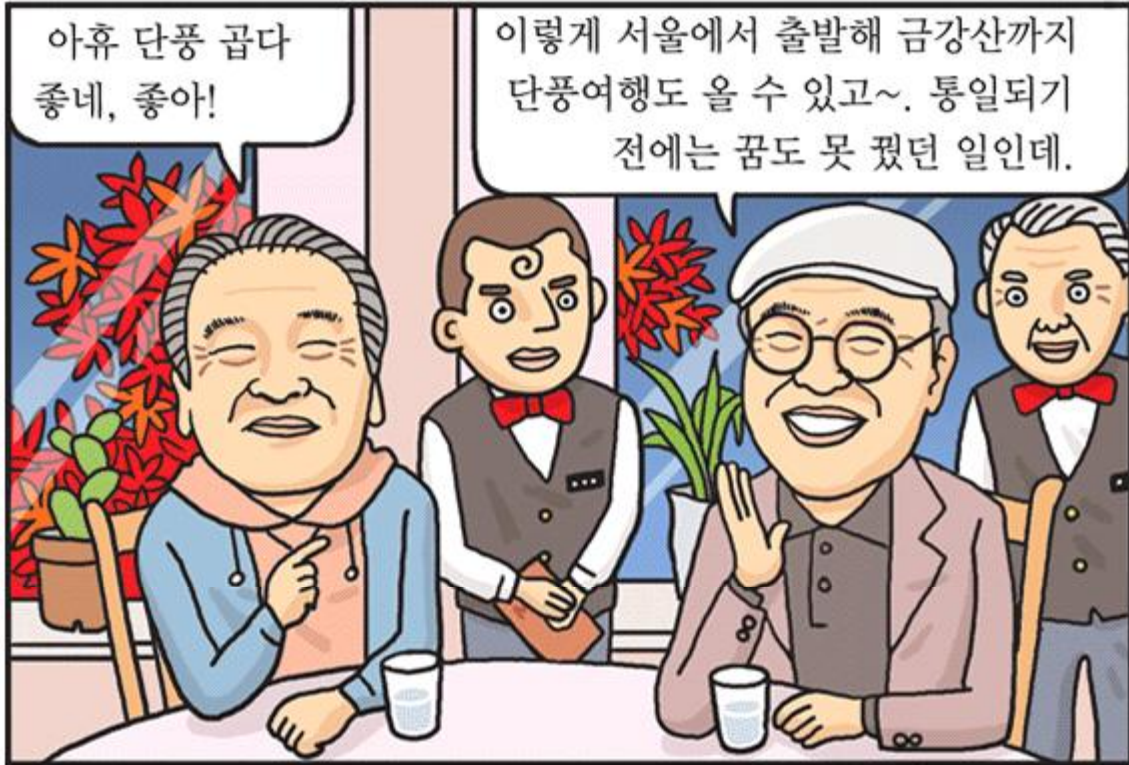


해가 순천만 위로 힘없이 떨어지며 갈대밭을 검붉게 물들일 때 순천을 떠난다. '감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진기행의 주인공은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찢어 버린다. 지금의 나는 과거 무수한 나로 이뤄져 있다. 마음이 다시 제 길을 찾으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기대는 건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갈대밭 어딘가에 짧은 문장 하나를 묻고 떠난다. 안녕, 당신.

〈글.사진 / 기자희〉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나라, 통일 대한민국!

이택중





허허, 이 양반이 우리 또래는 돼 보이는구먼~.

아휴 늘면 뭐합니까.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복지가 좋아진데다
일자리가 늘어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저 같이 은퇴 후에도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럼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세요?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통일생활학교에서 남한의 지리도 가르쳐요. 은퇴 전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천식 기침에 좋은 평안도 더덕볶음

한낮엔 따뜻하고 아침 저녁엔 뽀뽀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나 천식을 앓는 환자들에게 괴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더덕은 이처럼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더덕은 음기를 보하고 맑게 해주기 때문에 가래와 기침에 효과가 있으며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평안도에서 즐겨 먹는다는 더덕볶음 레시피를 준비해 왔다.



요리재료

더덕 200g, 소고기 100g, 대파 20g, 홍고추 1개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2 큰술, 간장 2 큰술, 소금 1티스푼,
후춧가루 약간



요리방법



1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두드린 후 잘게 찢어 물에 불렀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한다.

2 소고기는 길게 채를 썰고 대파는 반으로 가른 후 길게 채 썰어둔다.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길게 채 썬다.



3 참기름을 팬에 두르고 채 썬 소고기와 대파를 볶다가 더덕과 채 썬 홍고추 다진 마늘, 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낸 후 그릇에 담고 통깨를 뿌려 상에 낸다.



▶ 요리연구가_ 나유신

북한 지역 최고의 맛은 평안도 음식?



북한에서 음식 맛이 으뜸인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단연 평안도를 꼽는다고 한다. 평안도 음식은 크고 먹음직스러우며 푸짐하게 만드는 게 특징인데, 음식 간은 심심하고 맵지도 짜지도 않다고 알려져 있다.

평안도의 대표적인 음식은 평양냉면이며, 그 외에 주식류로는 평양온반과 김치밥, 어죽, 만둣국, 느릅쟁이국수, 강랑국수, 온면, 김치말이냉면 등이 있고, 찬류로는 어복쟁반, 송어국, 내포중탕, 빈대떡, 순대, 녹두지짐, 더덕전 등이 유명하다. 또한 김치는 백김치가, 병과류로는 송기떡, 노티, 과줄, 꼬장떡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남북한 함께 한가위 달타령하고 싶어요

글_ 감숙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남한에서 보는 달과 북한에서 보는 달은 하나인데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땅에서
 하나의 달을 바라보고 있네.

달님이시여!
 하루 속히 통일대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히, 폐쇄적이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이
 평화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력을 허락하소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남북 구분없이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흥겨운 달타령도 부르게 하시고
 달님을 향해 다시는 통일을 기원하는 소원은 빌지 않게 하소서.
 나라의 번성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이산가족도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글_ 꼬기꼬기

세월이 흘러가며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나뉘어진 한가위도



70번이나 흘러보낸 썸이지요. 남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낼 동안, 북한에서의 처절한 현실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이러하니 가족을 북에 두신 어른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요. 올해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추석 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랐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올 추석도 가족들의 얼굴을 그저 마음속으로 그리워만 하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 가족과 함께, 남북한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처럼, 통일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을 그럴 때,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배고프지 않고 풍요로운 명절 맞이하기를...

글_ TORRES9

달님! 지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가위에는 북한 사람들이 배부른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을 이산가족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예요. 이번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추천에 불과 250명만 당첨되고 당첨되지 못하여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이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이산가족분들께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분들이 죽기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통일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까만 밤에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모여
통일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혀줄 거예요 ^^



응모기간 2015.11.02 ~ 2015.11.18

응모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2만원

당첨자발표 12월 둘째주



<주의사항>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이벤트 당첨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 책갈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eyeon0129@nate.com	꽃보다통일
2	**amja666@hanmail.net	오토바이
3	**ettycodi@hanmail.net	밍키
4	**tme8622@naver.com	바쿠이
5	**riljeon@naver.com	코코아
6	**nkwing99@naver.com	몰텐
7	**ter2126@naver.com	카이지
8	**o8318@naver.com	같은하늘아래
9	**khero@naver.com	란돌살앙
10	**esukangel@hanmail.net	핑퐁홀릭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rr2@naver.com
2	**eoleoo@hotmail.co.kr
3	**asa202545@nate.com
4	**ingco20@naver.com
5	**s1548@hanmail.net
6	**imsy0406@naver.com
7	**cuper123@naver.com

8	**tio@naver.com
9	**ekdmddk@naver.com
10	**6491@naver.com
11	**n0304@naver.com
12	**1982ko@naver.com
13	**onkdyaa@naver.com
14	**reny2002@hanmail.net
15	**mk28@hanmail.net
16	**us1125@naver.com
17	**olicbend@naver.com
18	**kksshot@hanmail.net
19	**ydoctor@msn.com
20	**n2024@naver.com
21	**eree2011@gmail.com
22	**khero@naver.com
23	**ereyetg@naver.com
24	**lsasss@naver.com
25	**ndcreme@naver.com
26	**3185@hanmail.net
27	**kk4@hanafos.com
28	**fhg1991@naver.com
29	**ayeraqua@naver.com
30	**rhaps00@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